

재건축 가뭄에... 대형 건설사, 리모델링 사업 팔 걸었다

현대건설 공사비 2280억 규모 용인수지신정마을 9단지 리모델링 리모델링 TF 출범, 정식부서 재편

삼성물산·GS건설·대우건설 사업입찰 참여, 선정·협상 진행 중
롯데·쌍용건설 4천억 대 사업 수주



용인 수지 신정마을 9단지 조감도.



/현대건설 목동 2차 우성아파트 투시도.



/롯데건설 광명 철산한신 아파트 조감도.

/쌍용건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해 도시정비 사업을 규제하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은 서울 송파와 경기 용인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수주에 집중하며 단독입찰을 노리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올해 1월에 용인수지신정마을 9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 공사비는 2280억원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하고

최근 사내 정식부서로 재편시켰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아직 리모델링 수주 실적이 없지만 현재 금호 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리모델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다. 본 계약은 5~6월 예상된다.

GS건설 역시 아직 리모델링 수주 실적이 없다. 현재는 문정건영아파트와 밤섬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단독참여해 시공사 선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밖에 대우건설은 용인시 수지구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수주를 노리고 있

다. 대우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만이 참여해 단독입찰이 기대된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기존 1168가구를 수평 및 별동 증축하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개발되며 14개동(기존 12개동) 1343가구 규모의 단지로 바뀌게 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6일 리모델링 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 송파구 '가락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 입찰에 쌍용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해 참여했다. 대우건설의 리모델링 입찰은 2009년 이후

12년만이다.

롯데건설은 올해 목동2차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 롯데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비는 4944억원이다. 이밖에 롯데건설은 암사동 선사현대, 명일동 중앙하이츠, 가락동부센트레빌 등 송파·강동구의 주요 리모델링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이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도 광명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다. 규모는 25층 12개동 1586가구다. 공사비는 4600억원이다. 쌍용건설은 지난

2000년 건설업계 최초로 리모델링 전담팀을 출범한 뒤 누적 수주실적 14개 단지 총 약 1만1000가구, 1조5000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에 제약이 있는 일부 단지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다"라며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일부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K-배터리, 관세혜택에 '美 생산' 속도전

LG에너지솔루션 5년간 5조 투자 75GWh 생산... GM과 합작 추진

삼성SDI 셀 생산라인 투자 전망
SK이노베이션 1·2공장 건설중

K-배터리가 미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향후 2025년까지 현지에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미국 현지에 배터리 생산능력 추가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을 내놨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5GWh 규모의 미시간 공장을 가동 중이다. 이를 포함해 2025년까지 총 5조원 이상 투자로 75GWh 이상의 독자적인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GM과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에 추가 투자도 검토한다. 현재 제1공장에 이어 올 상반기 중 제2공장 투자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얼티엄 셀즈는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에 내년 가동을 목표로 35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제2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부지는 상반기 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공장은 오하이오주에 있는 제1공장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합작법인의 제1, 2공장 모두 가동에 들어간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현지 생산능력은 총 140GWh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삼성SDI도 미국 현지 시장에 생산능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삼성SDI는 미국 미시간주에 배터리 팩 생산 공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 셀 생산라인은 없어 이 같은 공장 건설을 위해 추가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기차 배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



삼성SDI 미국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 제1공장.

터리는 셀과 모듈, 팩 순으로 만들어져 하나의 배터리가 완성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제1, 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2018년 조지아주에 연간 9.8GWh 규모 전기차 배터리 제1공장 건설을 결정했고, 최근 시험생산을 위한 준비를 완료해 올 상반기 중 시운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 목표 시점은 내년 1분기다. 또,

제2공장은 지난해 착공해 11.7GWh 규모로 2023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시장에 생산공장을 짓기 위해 투자를 가속하는 배경에는 현지 정책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지난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시행하면서 2025년 7월 1일까지 역내가치비율 75% 의무를 충족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판매되는 전기차에는 현지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탑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Buy America'라는 리쇼어링 정책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미국산이 아닌 전기차를 미국에 판매할 경우 10%의 징벌세를 부과한다. 미국산 전기차의 필수 조건은 배터리 셀 현지 생산이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향후 미국 시장 진출이 중요하다. UCMCA 시행으로 미국 내 배터리 생산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삼성SDI 관련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미국에 배터리 공장 투자 결정이 중요하다. 미국향 전기차 배터리 물량 확보가 전제 조건임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가 최적기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미얀마 군함지원 아냐... 다목적 지원선"

포스코인터 "방사청 정식허가 사업"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의 군함 구매를 대행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상선 스펙의 다목적 지원선을 인도한 것이라고 7일 반박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8년 민선수치 정부 당시 미얀마 조달청과 다목적 지원선 수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선조선이 해당 다목적 지원선을 건조해 2019년 미얀마로 인도했다"며 "절차상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진행한 사업이며, 군함 등 전투 목적의 배는 공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한 다목적 지원선이 군용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대선조선은 방위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함 등 군용 옵션을 적용한 배를 건조할 수 없고 ▲인도한 다목적 지원선은 영국 로이드(Lloyd)

상선 기준이 적용되는 비무장 상선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다목적 지원선의 용도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구호물자와 인력을 수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얀마에 전달한 것과 같은 형태의 선박이 페루에도 인도됐는데, 페루에서는 수해가 발생했을 때 이재민들을 구조하는 용도로 선박을 활용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와 함께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수 운영인원을 제외한 주재원과 가족의 철수를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얀마 비상상황에서 일부 왜곡, 편향적 주장은 진중 기업과 직원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성운 기자 ysw@

신협·수협 '웃고', 농협 '울고' 실적 희비

금감원, 작년 상호금융 당기순익 2.2조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의 실적이 명암이 엇갈렸다. 신협과 수협은 실적이 개선됐지만 농협은 악화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신협·농협·수협·산림 등 상호금융조합의 당기순이익은 2조2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협이 1조6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450억원 감소했다. 반면 신협 3831억원, 수협 779억원, 산림 698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0억원, 66억원, 299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신용사업부문(금융) 순이익이 3조4644억원으로 전년 대비

7481억원이나 크게 감소했다. 경제사업 부문에서 농협의 하나로마트 매출이 늘면서 1조2877억원 손실로 적자폭이 축소됐다.

총자산은 58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조원(7%) 늘었다. 조합당 평균 자산은 26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원(7.1%) 증가했다. 총여신은 401조1000억원으로 35조7000억원(9.8%), 총수신은 498조1000억원으로 34조1000억원(7.3%) 늘었다.

자산건전성도 개선됐다. 연체율은 1.54%로 전년 말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3%포인트 하락한 1.19%, 기업대출 연체율은 0.24% 하락한 2.23%다.

/안상미 기자 smahn1@